지역 메아리

김제시, 풍수해위험 공모사업 선정

김제시는 최근 행안부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사업 공모전에서 전북에서 유일하게 395억원 규모의 김제역주변 종합정비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풍수해 생활권 재해위험지구 공모전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1차 서면 심사에서는 13건을 선정하였고 2차 발표 심사에서는 부처별 사업을 통합해 추진하는 방안과 상가 시민의 인터뷰, 드론 촬영 등을 제시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3차 현장 점검에서는 점검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

김제시는 내년부터 23년까지(4년간) 총395억원(국비 198, 도비 79, 시비 118)을 투입하여 배수구조물 정비 L=3.26㎞, 펌프장 신설 3개소, 저류지 설치 3개소 등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동부 시내권 침수피해 지역이 해소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신풍동 일대 주택과 상가, 신풍동, 황산면 일대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완전히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선제적인 재해예방과 항구적인 대책 수립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다문화가정 아동 도서 지원

완주군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도서를 지원받게 됐다.

26일 완주군은 최근 여송사회복지재단에서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하는 '책 읽어주는 희망소리책 지원사업'에 드림스타트 아동 4명이 선정돼 200만원 상당의 도서와 독서리더기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디오북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책과 친해지도록 하며 한국어가 서툰 엄마의 자녀 지도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이다.

희망소리책 지원을 받게 된 아동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또래에 비해 말수도 적고 발음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과 리더기를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관계자는 "경제적 문제로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송사회복지재단은 '기업에서 얻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으로 전문적인 나눔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된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김제지평선축제 막 올랐다

시, 오늘부터 10월 6일까지 벽골제에서 열려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오감만족 체험왕국'으로 무장하고 관광객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치고 27일 개막한다.

올해 지평선축제는 'Over the Horizon~ 건강한 축제! 신나는 축제!'을 슬로건으로 축제 주요 방문객인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했다.

먼저 지평선축제는 전 연령층이 고루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전통농경문화를 즐길 수 있는 벼 수확체험부터 김제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벼고을 사금이야기, 우리 먹거리 쌀로 만드는 333m 가래떡 퍼포먼스, 전통 가양주 만들기, 아궁이 쌀밥짓기 등 우리먹거리 체험과 친환경 보트 체험인 솔라보트 체험, 황금들녘 깡통열차, 우유를 외치다! 목장나들이 체험, 생활공예 체험, 민속놀이 등 110여가지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작년 처음 선보였지만 놓친 분들을 위해 올해도 세계 최고 공군인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두시&날자'와 지평선의 밤을 밝게 밝히는 달빛 미러볼이 대기 중이며 벽골제 내 공연으로 올해는 의자 없이 돗자리 깔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크콘서트도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도 19개 읍면동의 향토음식 부스를 통한 1면 1특화음식을 선보여 제대로된 어머니의 손맛과 로컬푸드존, 청년거리의 청년 푸드트럭 등 김제의 우수한 농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먹는 즐거움까지 만족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전국 700여개 지역축제 중 만족도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우리 지평선 축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보다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올 가을 지평선 축제를 방문한다면 그 어느 해보다 더 큰 만족을 느끼고 가실 수 있을 것이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놀고, 보고, 느끼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 개최

완주군, 오늘부터 29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서

와일드하게 놀고, 보고, 느끼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가 문을 연다.

27일부터 29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리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가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고 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해 매년 축제를 기다리는 마니아가 있을 정도. 개막식은 오후 6시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며, 가수 조성모, 딕펑스, 진주, 제니스가 축제의 시작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또한, 각 읍면 주민들이 준비하는 로컬푸드 음식부스는 좀 더 확대돼 축제 관광객을 최대한으로 수용할 수 있게 했다.

삼례읍에서는 들깨수제비, 봉동읍은 더덕홍어회, 용진읍은 토란대전, 상관면은 다슬기칼국수, 이서면은 시래기표고밥, 소양면은 청국장백반, 구이면은 피순대국밥, 고산면은 민들레 비빔밥, 비봉면은 도토리해물파전, 운주면은 인삼쭈꾸미볶음, 화산면은 소머리국밥, 동상면은 아로니아 돈까스, 경천면은 산나물비빔밥 등을 선보인다. 메뉴만 나열해도 군침이 돌 정도.

좀 더 색다른 음식에 도전해 보고 싶다면 이색요리 코너장을 방문해보자. 꿀벌 애벌레볶음, 벌집범벅 샐러드, 꿀벌 애벌레즙, 개구리 튀김, 메뚜기 구이, 거저리 빼배로, 달팽이 아이스크림, 닭머리찜, 대형번데기가 반긴다.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놀이터 역시 규모가 커졌다. 볏짚 미끄럼틀, 정글짐, 그네와 통나무 징검다리까지 아이들의 시선을 한 데 모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와일드한 체험도 이어진다.

맨손 물고기잡기, 족대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잡은 물고기는 화덕체험공간에서 직접 구워먹을 수도 있다. 더욱 와일드한 체험을 원한다면 '도전 와일드맨을 찾아라'도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각 미션을 통과한 1등만이 '와일드맨'이 될 수 있다. 시랑천에서는 대나무 물총 체험도 이뤄진다. 28일 오후 7시부터는 토토즐 떼창특집 공연이 마련돼 가수 소찬휘, 마야, 김장훈이 특설무대를 꽉 채운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일반농산어촌분야 '우수사례' 선정

2019 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 표창 수상'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6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주최한 2019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균형발전사업 평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균형발전위원회가 해마다 시?도 및 시?군?구 포괄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목표 달성도,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서면-현장-최종심의)에 걸쳐 평가가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김제시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성장촉진지역개발, 소하천정비 3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에서 두월천권역사업이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최종선정되며 김제시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두월천권역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금구면 낙성리, 청운리 일원의 6개 배후마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작은결혼식, 몸빼바지 패션쇼를 주제로 두월천작은문화축제를 여는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사업과 두월노을관, 등나무터널 등 주민 커뮤니티 조성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주민 직접참여를 통한 지역의 공동체성 강화 노력과 '콩쥐팥쥐'설화를 활용한 독자적인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콩쥐팥쥐 네트워크 협의체와의 연계 활성화로 지역자립성 확대 결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통 김제시협의회 19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19기 출범식

김제시, 조숭곤 신임회장 취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협의회장 조숭곤)는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및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통 김제시협의회 19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제19기를 이끌어 갈 신임 협의회장으로 조숭곤 자문위원이 취임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대행기관장인 박준배 김제시장이 제19기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수했다.

2019년 3분기 정기회의를 통해 앞으로 펼쳐나갈 각종 평화통일 활동방향에 대해 보고 하는 등 민주 평화통일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제19기 조숭곤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김제시 협의회 제19기 회장으로 선임되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서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활동을 통해 지역협의회가 평화통일을 위해 항상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대행기관장인 박준배 김제시장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제19기 민주평통자문회의의 활발한 활도을 기대하며, 시민들이 화합하고 지역이 상생·소통하는데 제19기 자문위원드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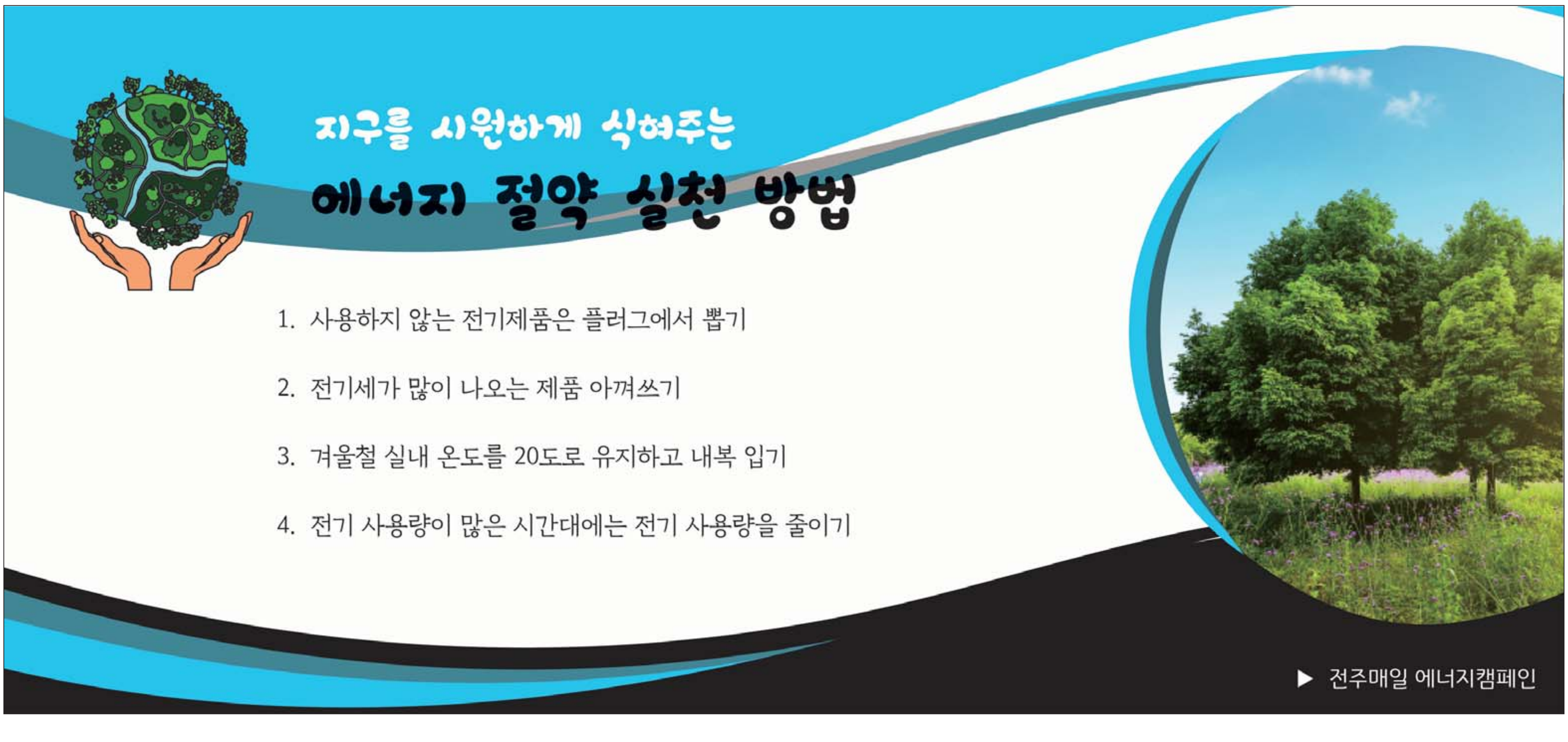
63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19기 민주평통 김제시협의회는 2021년 8월 31일까지 2년간 통일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국정에 반영해 나가는 국민참여형 통일기구로써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성료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25일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청·장년층 취업률 향상과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하는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행사인 '2019년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그간 김제시는 관내 산업단지 등 수많은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기업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채용계획이 있음에도 우수한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알고 김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을 추진하여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제시 순동에 위치한 전북 최대 만두 제조업체인 ㈜푸드웨어 및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일강, ㈜대승 등 총 7개 업체가 38명 채용을 목표로 참여했으며,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장년층 구직자 100여명이 참여해 현장면접을 성황리에 마쳤다.

김제시는 향후에도 일자리매칭사업으로 이뤄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참여기업과 구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상담을 제공하여 중·장년층,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청년층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구인홍보부터 면접, 채용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맞춤서비스를 제공해 우수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